

국가 안녕, 호국, 남북통일 기원
2014년 법왕사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화엄의 바다에 다 모이십시오”

법왕사에서는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1년간 3회에 걸쳐 백고좌대설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두번째 법회인 제27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実相 합장



• 1일차

5월 13일 입재 법회
성열스님 강남포교원장



• 100일차

8월 20일 회향 법회
혜능스님 전 해인사 올원장

- ◆ 일시 : 2014년 5월 13일 ~ 8월 20일 (100일간) 법문시간 매일 오전 11시
-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제28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 : 2014년 9월 13일(토)

회향 : 2014년 12월 21일(일)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4. 5 | Vol. 240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화엄신중 천일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새해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천일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음력 12월 15일) 입재하여 2016년 10월 10일(음력 9월 10일) 회향하는 이번 천일기도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 천일의 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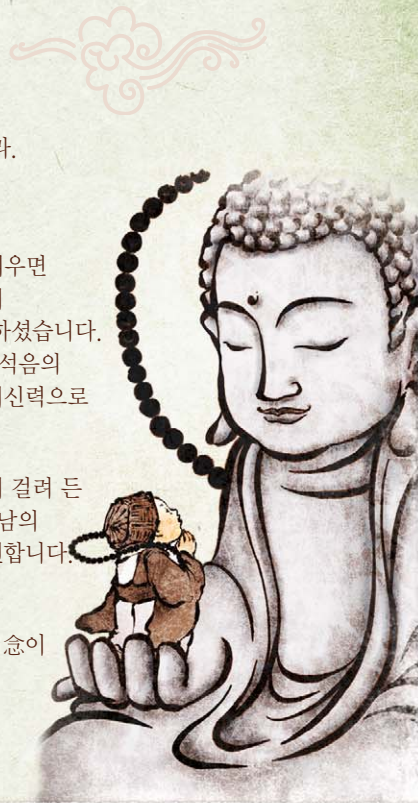
삼일수심(三日修心)은 천재보(千載寶)요
백년탐물(百年食物)은 일조진(一朝塵)이니라.
삼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와 같고
백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느니라.

자경문의 말씀을 되새기며 몸 낮추는 계절입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이 경을 믿고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면
초발심에 문득 바른 깨달음을 얻어 불국토의 바다에
편히 앉게 되나니 이를 일러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하셨습니다.
걸음, 걸음들이 더디지만 하여 급한 마음 밭에 어리석음의
씨앗을 심지 않도록 화장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지켜주시기를 발원합니다.

탐욕심이 지은 업으로 뒤틀려 어긋나 악연의 고리에 걸려 든
인연들이 자재하신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으로 어긋남의
고리를 끊고 선한 인연되어 화락하게 하옵기를 발원합니다.

여기, 법왕사 불자들이 천일의念을 세웠습니다.
신심깊은 불자들의 한마음 한마음이 모여 천일의念이
완성되는 날 소구소원하신 모든 발원이 성취되어
너도 관세음, 나도 관세음,
우리 모두 관세음 되게 하여지이다.



천일기도 안내

- 입 재 :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음 12월 15일)
- 회 향 :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음 9월 10일)
- 천일법회 : 합동재일은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2시 본당 2층에서 약찬게 49독 후 축원
- 천일염주 : 천일법회시 천주를 제작할 30알의 염주와 염주 주머니를 드립니다.
- 기 도 비 : 입재시 10만원, 매월 초하루 3만원(30개월)
- 초하루, 보름 특별축원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간 주지스님 집전(대중스님 전체 동참)
- 10차 기도시 합동천도재 봉행, 영가 1위당 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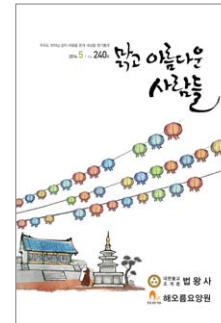
※ 1000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님께서는 1000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입재시 100알의 염주와 1000주 염주를 만들 염주 줄을 드립니다.

C.o.n.t.e.n.t.s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4
5

Vol. 240호



- 04 깨침의 향기
평상심으로 마음의 밭을 일구자 · 원공당 정무 대중사
- 08 비슬산방
부처님 오신날에
생각하는 참된 불자의 길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진정한 행복은 마음 잘 다스리는 것 · 본원스님
- 14 불교상징의 세계
단청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와 의미 · 조명래
- 18 특집 I | 부처님오신날
중생의 행복 위해 사바세계에 오시다
- 20 특집 II | 연등의 의미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상징, 연등
- 22 명찰순례
봄꽃의 향연을 펼치는 충북 진천 보탑사
- 26 법왕사소식
- 28 법왕사게시판
- 30 해오름소식
- 31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 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 수성 라 00017 |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 불기 2558(서기 2014)년 5월 01일 발행 | 통권 240호 | 종무소 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 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 강영도 |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 편집위원 모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윤, 대일, 강선옥, 대혜궁, 묘향심, 반야화 | 기획·제작·디자인 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발원합니다.

평상심으로 마음의 밭을 일구자

원공당 정무 대종사



본마음이나 참 나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속의
고통에 물들면서 잃어버
렸습니다. 따라서 참선을
통해 본마음·참 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급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인간은 그 자체의 존엄성보다는 그 속에서 한갓 부 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현대 문명의 그늘 한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공허감과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는 것 이 현대문명의 고독감이고 소외감입니다. 이런 생 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돌아볼 기회를 갖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운동의 하나로, 더 나아가서 는 공허한 정신을 메워 가는 유용한 방법 가운데 하 나가 바로 참선(參禪)입니다. 참선이란 범어의 드 야나(dhyana)라고 하는 말을 음역으로 표기한 것 입니다.

참선은 곧 '본마음' 또는 '참 나' 를 밝히는 것입니 다. 본마음이나 참 나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본 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본마음과 참 나 는 청정무구하여 일찍이 티끌세간 속에서도 물 든 일이 없으며, 완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속의 고통에 물들면서 잃어버린 것이 바 로 본마음이고 참 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불 자들은 참선을 통해 본마음·참 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하는 참선은 일반 인 명상법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참선을 명상이라고 번역하고 사유수(思惟修)라고 도 합니다. 고요히 생각한다고 해서 정려(靜慮)라 고도 하고, 악을 버리는 행위라 해서 기악(棄惡)이 라고도 합니다. 또 선으로 말미암아 온갖 공덕이 축 적된다고 해서 공덕총림(功德叢林)이라고 번역하

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참선은 바로 마음을 닦는 일’ 즉 수심법(修心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열반의 도를 깨치신 뒤 49년 동안 중생 제도를 위해 팔만사천법문을 설법하셨지만 이는 모두 다 부처님의 입을 통해 말씀으로 전하신 교문(敎門)이고 이론과 사랑(思量)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마음과 마음을 직접 열어 보이는 선의 원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참선의 기원은 첫째, 인도에서부터 수련되어 왔던 요가(yoga)에서 비롯된 인도 선입니다. 부처님 이전의 요가수련은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정신을 수련하고 또 여러 가지 명상을 익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선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선을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천태선은 중국에 와서 천태 지자대사(智者大師)가 세운 범화종에 의해서 강조가 됐는데 이 천태선은 범화경을 비롯한 대승교리가 그 내용이 되고 방법에 있어서는 인도의 요가 수련법을 그대로 형식상으로 옮겨와서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선이란 바로

달마선을 뜻합니다. 달마선은 부처님께서 언어를 떠나 마음에서 마음을 전하신 ‘염화시중(拈花示衆) 다자탑전 분반좌(多子塔前 分半座) 사라쌍수하(娑羅雙樹下) 괘시쌍부(擲示雙趺)’의 삼처전심(三處傳心)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나 어떤 이론을 숭상하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으로 바로 돌아가서 즉시에 성불하고 즉시에 해탈을 성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선가에서는 참선의 종지(宗旨)를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16자로 요약합니다.

“경전에는 삼천대천세계의 우주가 한 티끌 속에 들어가고 티끌이 한 우주 속에 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나 어떤 이론을 숭상하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으로 바로 돌아가서 즉시에 성불하고 즉시에 해탈을 성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가는 것이 자유자재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선에서는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 우주를 던지기도 하고 자기 안으로 집어넣기도 한다. 전체의 세계와 우주를 자기 마음대로 들여놓기도 하고 내놓기도 하여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없고, 미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인데 인간의 생각은 과거 일이나 미래 일에 빼앗겨서 현재를 잘 모르고 살아 갑니다. 그러나 선에서는 바로 현재의 한 생각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실천하고, 응용하고, 자유자재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감정은 취할 것과 버릴 것, 사랑할 것과 미워할 것으로 구분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은 취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버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선에서는 이와 같은 취사와 애정의 감정을 초월해서 항상 평상심(平常心), 자연심(自然心)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선사들의 감정이고 생활방식입니다.

우리네 삶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많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 많다보니 마음은 항상 번뇌망상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인데 내 배부르면 그만이고,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한들 내 몸 가리는 데는 한 벌이면 족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마음의 살림을 일구는데 진심진력(盡心盡力)하도록 합시다.

부처님 오신날에 생각하는 참된 불자의 길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살님을 태우고 도솔천으로부터 내려와 그의 후원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마야 부인은 곧 태기가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붓다는 과거 오백생의 수행을 성취하고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자기의 대사명을 수행할 시기가 온 것을 느끼고 범천(梵天) 등 천상의 임금들과 협의한 후 석가족 정반왕의 태자로 태어날 것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인행(因行)을 다 마쳤으니 장차 세상에 내려가 성불하리라'고 하며 사바세계 탄생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야 부인은 아기가 태어날 달이 가까워지자 나라의 풍습에 따라 왕의 허락을 받고 친정인 천비성으로 가다가 룸비니 꽃동산에 이르러 갑자기 산기가 일어났습니다. 부인은 꽃송이가 만발한 무우수 가지를 잡

지금으로부터 2558년 전, 히말라야 대설산 기슭에 자리잡은 카필라국의 정반왕은 지혜와 용기를 겸전하고 그의 부인 마야 부인은 마음씨가 연꽃처럼 고와 만인이 칭송하는 가운데 지극히 행복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나이 50이 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해 다소 쓸쓸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섯 개의 이빨을 가진 흰 꼬끼리가 거룩한 보



는 순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자는 태어나자마자 하늘로부터 많은 신들이 내려와 그들의 보드라운 손으로 받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시원한 두 줄기 물이 쏟아져 태자의 몸을 씻기고 태자가 선뜻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고 북쪽으로 일곱 걸음을 내디디고 서서 오른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 외쳤다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하늘 위에서도나 하늘 아래서나 내가 제일 높다'는 뜻인데 '나 홀로 높다'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번뇌 망상의 차별 세계에서는 좋다, 나쁘다, 예쁘다, 밋다 하는 상대 평가가 기준이 되지만 평등세계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홀로 높은' 절대 진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 홀로 높다'라는 말은 진리 자체인 부처님의 경지를 가리켜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뚜렷이 우뚝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바로 '나 홀로 높다'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바세계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은 천상세계에서 사바세계로 공간이동

을 해온 천상의 인간도 아니며, 중생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의 모습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수행에 의해 얻은 깨달음을 통해 붓다라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못 중생들이 부처님을 본받아 온전한 인간상을 구현하도록 교화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깨달음은 또한 어떤 도사가 되는 것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술사(術士)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초인적인간도 아니며 전능자(全能者)도 아닙니다. 붓다는 그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간의 표상이며 우리의 스승인 것입니다.

초파일에 즈음하여 거리에서나, 신문, 잡지에서, "중생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표현도 법당에서 부처님을 절대적 대상으로 하여 소원만을 비는 행위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초파일이 한낱 구원의 꿈이나, 소원성취의 날로 전락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초파일을 맞아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일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삶의 방법과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날이 되도록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 잘 다스리는 것

본원스님 / 토굴 정진중



“마음은 가볍게 움직여 다스리기 매우 힘든 것
어느 곳이건 좋아하는 곳에 쉽게 머문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진정 훌륭한 것
잘 다스린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법구경〉

아무리 좋아하는 부귀와 호사며 바라는 명성을 얻었더라도 이 몸은 멀지 않아 반드시 나를 배신하고 저버리며 떠나간다는 엄연한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은 까마득히 잊은 채 살고 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도 이 몸이 나를 배신할 확률은 100%이다.

여기에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있을 수 없다. 애지중지 금이야 옥이야 하며 무던히 도 악착스레 애써 기르고 가꾸면 무얼하

나. 늘 ‘나’ 만 내세우고 자존, 자만, 아만을 내세우는 ‘나’ 즉 이 ‘내 몸’은 아직 집행 날짜를 받지 않은 사형수와도 같다. 늙었든 젊었든, 남자든 여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자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명성이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죽음은 모두에게 가장 공평하게 찾아온다.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저 감나무에서는 익은 감만 떨어지는 게 아니다. 시

퍼런 땀감도 마구 떨어져 흥한 채로 나뒹굴며 상해 버리듯이, 무시(無時)로 기약 없이 다가오고 피할 도리 없이 속수무책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숨이다. 숨이 멎는 그 즉시 상하기 시작하면서 몸안에 깃든 정신(영혼, 혼백)은 건드릴 수 없어 몸을 떠나버린다.

어디로? 생전에 지은 선악의 업에 따라 인연에 따라, 또 다른 모태(母胎)를 찾아간다. 유정(有情)은 업이라는 일방적 힘에 내몰리면서 바야흐로 자궁에 들어가는 존재의 끝없는 생사 굴레를 벗지 못하고 거듭 거듭 생멸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 ● 탐욕과 쾌락은 심신을 병들게 해

평생을 바쳐 죽을 등 살 등 일편단심이 몸뚱이 하나만 지극히 위하고 믿으며 기대어 살았건만, 그 지중한 공(功)을 도무지 모르고 매정하고 야속하게 몰인정스럽게 변절하듯이 한 순간에 배신하다니…. 따지고 보면 생각할수록 껄껄하며 실망스럽고 한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살면서 ‘당신을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며 세상이 온통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놀음에 빠져든 것 같다.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음란 비디오, 변태 유흥업소, 거기다가 마구 벗어대는 방송광고는 선전과 외설로 도배하다시

피 꾸며진다. 신간이 날마다 쏟아지듯 나오지만 불타나게 팔리는 것은 에로티시즘을 주제로 한 삼류소설이다.

먹고 살기에도 힘겨울 정도로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에로티시즘(eroticism)은 독버섯처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생겨나 불야성을 이루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장사’는 속성상(?) 한낮이면 더 잘 된다는 불황을 모르는 ‘리브호텔’, ‘모텔’이 이 땅에서 성업 중이라고 하는데 이걸 알아야 한다.

지나친 음주와 마약만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아름답고 곱다며 육체를 탐닉하는 쾌락과 향락에 취하고 젖어버려 습관화되면, 그 중독성은 심신을 망가트리며 생사에욕(生死愛慾)에 부침하는 깊은 수렁의 늪으로 빠트려 영원히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철학 같은 어둠의 미망으로부터 눈떠 본래 제 정신을 찾은 법을 알아야 한다.

‘죽도록 사랑한다’는 말은 ‘죽도록 미워하고 싫어진다’ 하는 말과도 다를 바 없는 것이, 저마다 지난 삶의 여정을 돌이켜 보노라면, 불 같이 뜨거웠던 사랑의 달콤함은 세월의 무게에 못이겨 쓴 맛이 되어 식어진 지 오래이다. ‘당신 없이는 못 산다’던 애절한 그리움의 열정 대신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은, 타성에 젖은 범속한 일상 속

에 속물 근성으로 부딪히는 불화와 반목, 욕락을 추구하는 마음의 불안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혼란이다. 그저 그런 자질구레한 일로 지지고 볶고 다투는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과 권태로운 생활에 만성이 돼버려 스스로 달래듯이 ‘이제 와서 어찌하겠는가. 자식을 봐서라도 살아야지’, ‘미운 정, 고운 정으로 그냥 사는 게지’, ‘사는 게 뭔지?…… 고달프지만 이리라도 살아야지, 별 수 있는가’ 하며 실망하고 체념한다.

볼품 없이 나이 들어, 말라버린 건포도, 쪼든 장아찌 마냥 시들고 풀 죽어, 한때 맹목적으로 빠져든 ‘짜짓기 열정’이 두고두고 치러야 하는 허무맹랑하며 자가당착적인 감정의 유희에 흠뻑 놀아남은, ‘때대에 살가죽을 발라놓은 껍데기 허상’을 보고 곱다고 여기는 착각이 저지르는 인식의 오류에서 빚어진 일이다.

‘그릇된 견해를 지니면 하늘 위에 올라가나 땅에 있으나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생각의 동물이다. 생각(生覺)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 마치 술에 취하듯이, 자기 생각에 취하여, 그 생각에 따라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시비하고 주장하며, 아름답다 추하다며 분별하고, 생각 따라 오고가고, 생각 따라 말하고 침묵하며,

생각 따라 울고 웃고, 생각 따라 만족하고 불만족스러우며, 생각 따라 불안하고 편안하게도 하며, 생각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느낀다.



생각은 바로 사고의 현상태

사람의 삶을 뜻하는 ‘인생(人生)’을 표의(表意)문자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도 있다.

인생은 ‘사람[人]의 삶의 주체는 바로 ‘자신의 생각’이라고 함을 뜻으로 나타낸 글이다. 즉 ‘인(人) 변’에 ‘주인 주(主)로 이루어진 ‘생각 생(生), 날 생(生)’ 곧 ‘인생’이라는 향해 중에 만고풍상(萬古風霜)을 겪는 한바탕 질곡의 헛바람을 이룬만한 고단한 삶의 무대에서 갈 길 몰라 헤매고 방황하며 서성이다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부처님은 ‘생각(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행복의 관건’이라면서 범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은 가볍게 움직여 다스리기 매우 힘든 것

어느 곳이건 좋아하는 곳에 쉽게 머문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진정 훌륭한 것 잘 다스린 마음이 행복을 가져온다.”

마음과 생각, 생각과 마음의 관계는 여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흔히 ‘생각’을 하고 입 밖으로 ‘말’ 할 때, 그것은 부분이자 개체적임을 뜻한다.

‘내 생각이 이러한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생각부터 올바르게 가져야 바른 행실을 할 수 있다지’, ‘그래, 내 생각이 너무 짧았네.’

이렇게 말하는 ‘생각’이란 자기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일어나는 사고(思考)의 상태를 이른다.



마음은 잔잔한 바람속과 같아

반면, 마음은 다소 복잡적이지 포괄적인 의미로 쓰인다.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정화할 때만이……’, ‘아아, 알 수 없는 이 마음이여! 왜 이다지도 불편하고 불안하단 말인가’, ‘마

음은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다’는 등으로 표현하는 마음과 생각은 서로 구분이 어려울만큼 유사하면서도 마치 사물마다에는 속과 겉, 안과 밖이 있듯이 다른 것이다.

지난 일을 기억하는 것은 생각이고, 대상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혀끝에 맛을 즐기고, 냄새를 맡고, 아는 것은 마음이다. 일을 계획하고 좋은 방법을 꾀함은 생각이지만,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일이 잘 이루어지고 성취감을 느끼는 건 마음이다. 상황에 따라 기분 좋고 나쁨을 느끼는 건 마음 상태이고, 불 같이 치솟는 성욕을 비롯한 허다한 욕구 내지는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남을 발단으로 한다.

마음이 짓는 작심(作心)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일상에서의 행위이므로 따라서 본질적으로 마음의 바탕은 정적(靜的)이고, 생각의 바탕은 동적(動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비유하자면, 늘 잠잠한 깊은 바닷속과는 달리, 바람 따라 물결 일렁이고 파도치는 해수면과도 같은 것으로 그래서 예부터 말하기를, ‘바람 부니 파도 일고, 마음 일어나니 고통 일어난다’며 공연히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다.



단청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와 의미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일반적으로 문양이라 하면 무늬의 개념에 한정하지만 그 범위를 확대하면 공예, 건축, 조각, 회화 등의 모든 조형물을 구성하는 장식적 효과를 의미할 만큼 광범위하다. 우리나라 단청문양의 기본요소는 주술

과 종교, 그리고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토속적이며 상서로운 문양을 총망라하고 있는데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단청의 문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하문 : 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뇌문, 태극, 나선형, 격자, 만(卍), 아(亞), 삼원(삼보), 곱팽이, 직선 등
- 당초문 : 구름당초, 인동당초, 포도당초, 싸리당초, 국화당초, 보상당초 등
- 자연문 : 해, 달, 구름, 화염, 파도, 기암, 산수, 십장생 등
- 식물문 : 소나무, 대나무, 난, 석류, 감쪽지, 영지, 불로초, 각종 수목 등
- 화 문 : 연꽃, 국화, 모란, 매화, 만다라(보상화) 등
- 동물문 : 용, 봉황, 거북, 기린, 주작, 사자, 코끼리, 호랑이, 박쥐, 나비, 잉어, 곤충, 물고기, 각종 금수(禽獸) 등
- 종교문 : 불상, 보살, 선인, 비천, 12지신상, 성상(聖像), 불패, 귀면, 가룽빈가 등
- 길상문 : 수복, 강녕, 희, 부귀, 칠보 등
- 생활상 : 수렵, 어로, 농경, 전투, 무용, 연회, 주악, 문구, 악기, 필묵 등

단청문양의 요소

우리나라 단청문양의 핵심은 ‘머리초’, 즉 머리문양이다. 고려시대 단청 유물에서 나타나는 머리문양은 연화, 석류, 곱팽이, 주화, 녹화, 향아리, 민주점, 향방울, 녹·황실, 질림, 휘 등이 조합 구성된 것으로 우리나라 단청에서 가장 중요한 문양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머리초의 기원

머리초의 기원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고려시대에 건축된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등에 잔존하는 단청문양에서 머리초를 확인할 수 있어 그 형성시기를 대략 고려 중기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머리초를 구성하는 문양

머리초의 핵심은 활짝 핀 연화문 위에 안치된 석류형상이며, 여기에 둘레주화와 곱팽이, 녹화 등이 부가적으로 조합되어 독특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연꽃과 석류, 향아리를 핵심으로 하는 연화머리초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문양이다.

연화문

연꽃은 우리나라 단청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양이다. 술한 꽃 중에서 유독 연꽃만이 꽃과 열매가 동시에 피어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고대부터 생명 창조의 의미를 부여받았고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불교에서 연화화생 신앙은 사후에 연꽃 속에서 다시 태어나 서방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연꽃은 민간에서는 다산의 의미로 신앙되었고 도교와 유교에서는 군자의 상징으로 비유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연화머리초는 사찰



황룡사터 출토 사리함

뿐만 아니라 향교나 서원에서조차 빼놓을 수 없는 단청문양으로 각광을 받았다.

석류동

석류문양은 연화머리초에서 속칭 ‘석류동’이라 한다. 이는 석류와 향아리를 뜻하는 것으로 석류 위에는 반드시 향아리(사리함)가 결합된 문양을 일러 ‘석류동’이라 불렀다. 석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산과 자손의 번영을 상징한다. 석류가 다산을 상징하는 이유는 씨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조선시대에는 혼례용 활옷이나 원삼에 석류, 포도, 동자 문양을 장식하였고 여인들이 사용하는 비녀에도 석류잡이 크게 유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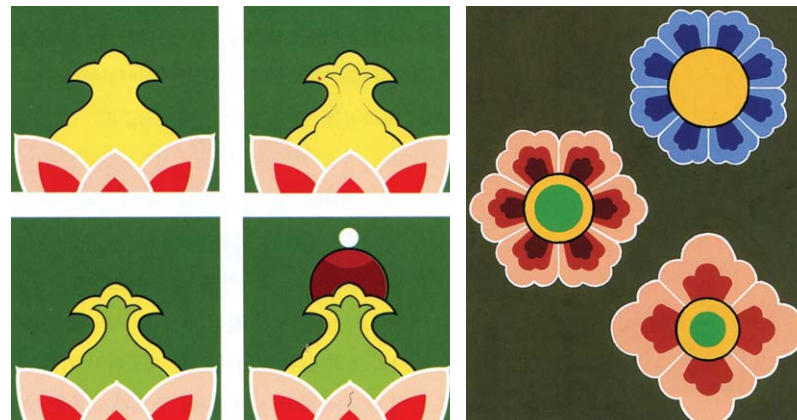
석류가 불교의 상징하는 열매가 된 까닭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잡아먹고 사는 야 자녀를 제도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그의 한

자식을 숨겨놓자 비탄에 잠겨 슬피 울었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불교에 귀의하자 구아(救兒), 안산(安産), 육아(育兒)의 서원을 세우고 귀자모신(鬼子母神)이 되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야차녀에게 석류를 주어 구아의 힘을 부여한 것에서 생명잉태와 자손번영을 상징하였다.

향아리(사리함)와 민주점

향아리는 연화머리초 핵심문양의 가장 윗 부분에 장식되는 요소이다. ‘향아리’란 이름은 후대 단청장들이 그 형상만을 고려해 붙인 이름이며, 그 실체는 삼국시대 사리함을 도안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향아리가 사리함을 형상화했다는 점은 오직 연꽃 위에 사리함이 모셔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향아리 위에 찍는 ‘민주점’은 그 형상과



연화머리초의 석류동

주화문 단청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 머리초의 시작과 끝의 경계, 단독문양의 경계를 장식해 문양의 완성을 의미한다.

녹·황실

녹·황실은 머리초 핵심문양의 둘레를 감싸는 것으로 각 문양 경계를 구분하는 너비 2cm 이내의 색띠를 말한다. 불교에서 오색실은 청·적·황·백·흑의 오방색으로 정토왕생을 바라는 이가 임종할 때 머리 위에 모셔진 아미타불의 손에서 망자의 손까지 연결하는 실이다. 즉, 오색실은 현세와 극락세계를 연결하는 매체로서 극락화생의 결선(結線)을 의미한다.

불상에서부터 오색실을 드리우고 점안식을 하고 이 오색실을 가위로 잘라 지니면 행운이 따르고 병마를 물리치며 장수한다는 길상의 의미가 있다. 단청에서 색실은 머리초 문양사이의 경계, 휘와 문양의 경

주화문(감꼭지무늬)

주화는 꽃잎이 4개인 형상으로 육상, 장단, 주홍으로 채색되기 때문에 ‘주화’라고 한다. 주화는 감꼭지를 소재로 도안된 문양이다.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일이 잘되기를 기원하는 표징’으로 감 또는 감꼭지 도안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감나무의 지반이 견고하고 온당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단청에 사용하는 주화무늬는 감꼭지를 도안한 것으로 만사형통을 상징하며, 건축물의 지반이 견고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중생의 행복 위해 사바세계에 오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BC 563년 음력 4월 8일 해탈 무렵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나무 아래서 북인도 카필라 왕국의 왕 슈도다나와 마야부인 사이에서 태어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걸음을 걷고 난 뒤, 두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사자후를 외쳤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생명 존귀하다. 세계의 고통 받는 중생들을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이 외침은 장차 고통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선언, 즉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눈먼 중생들을 위하여 걸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부처님은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6년간의 고행 끝에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다섯 비구를 상대로 설법을 하신 뒤, 이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중생들을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셨다.

부처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붓다’(Buddha)를 따서 만들었으며, 깨달은 사람을 뜻한다. 깨달음이란 단순한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며, 부처님이 체험을 통하여 증득한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

르쳐 주신 그 가르침 또한 배워서 알아야 하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 가르침을 믿고, 그에 따라 실천 수행해야 한다. 깊고 참된 진리를 깨달은 이는 마침내 생사의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불교 최고의 이상인 열반(涅槃)을 성취한다.

부처님은 모든 이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로 내려 오셨다. 그분이 나신 곳은 호화찬란한 궁궐이 아니라 길가의 동산 위다. 길에서 나서 길에서 살다 가신 우리 스승의 탄생은 그 자체가 중생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2천만 불자들은 부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것은 물론 ‘참 나’를 찾겠다는 분발심을 내고 부처님의 중생구제 원력을 세워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다. 중생의 병의 종류에 맞춰 약을 주셨던 부처님과 같이 우리 불자들은 이 시대의 중생의 고통에 맞게 처방을 해 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석가모니의 탄생일은 불탄일(佛誕日) 또는 욕불일(浴佛日)이라고도 하나, 민간에서는 흔히 초파일이라고 한다. 석가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불가(佛家)에서 하던 축의행사(祝儀行事)였으나 불교가 민중 속에 전파됨에 따라서 불교 의식도 차츰 민

속화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신라는 여러가지 불교 행사가 성했는데, 무열왕과 김유신 장군이 불교를 호국(護國)의 바탕으로 참여시키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불교행사는 이전부터 전해오던 세시행사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병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라의 팔관회(八關會)는 불교행사가 신라의 세시풍속으로 승화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월 초파일은 불도의 행사가 신라의 호국불교로 승화된 이래 후삼국을 거쳐서 고려조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민속과 동화되었던 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백제와 고구려 본기에는 불도의 행사가 세시의 행사로 거행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신라본기에서는 석가모니 탄생일을 팔관회로 거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왕성(王城)에서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정월 대보름에는 14일, 15일 이틀간을 저녁에는 연등(燃燈)을 하던 풍속이 있었으나 최이(崔怡)가 4월 8일로 옮겨서 하게 하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사월 초파일은, 불교의 축의 행사로 전래되었다가 민간의 세시풍속과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상징, 연등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전국 사찰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도 연등의 물결로 장엄된다. 연등(燃燈)은 번뇌(煩惱)와 무지로 가득 찬 무명(無明)의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한다. 때문에 등을 밝힐 때는 맑고 지극한 신심으로 임해야 한다.

범어로 등은 ‘디파(di-pa)’라고 하는데, 곧 ‘지혜’를 상징한다. 불교에서 등불이란 무명(無明)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광명을 말한다. 또한 등불을 공양하는 것은, 과거 인도로부터 깨달은 자에 대한 존경과 찬사의 표시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등불을 성인들이 앞에 올리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모든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고, 나의 모든 기원이 성취되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

연등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빈자일등(貧者一燈)’이다. 『현우경(賢愚經)』 ‘빈너난타품’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부자가 공양한 만 개의 등보다 가난한 자의 정성이 담긴 한 개의 등의 공덕이 더 큰 것임을 가

르치고 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가난해 결식하면서 살던 한 여인이 있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여인이 살던 성을 방문하시자 모두들 부처님을 맞이할 연등회 준비로 바빴다. 이 여인도 등불을 켜 부처님께서 오시는 길목을 밝히고 싶었으나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이에 이 여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두 닢을 빌어 기름을 샀다. 그리고 부처님이 지나가실 길목에 등을 밝히며 “저는 지금 빈궁해 이 작은 등불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이 공덕으로써 저로 하여금 내생에 지혜의 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어두움을 없애게 하소서.”라고 서원했다. 밤이 지나 다른 등불은 모두 꺼졌으나 그 여인이 공양한 등만이 홀로 불을 밝혔다. 이에 부처님 제자인 목련존자가 날이 밝아 불을 끄려고 했지만 꺼지지 않았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다야, 부질없이 애쓰지 마라. 그것은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이 큰 서원과 정성으로 켜 등불이

니,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 그 등불의 공덕으로 그 여인은 미래세에 필경 부처가 되어 질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다.

이렇듯 부처님께 등을 바치는 것을 ‘연등공양’이라고 했다. 등을 밝히는 공덕은 경전 곳곳에서 드러난다. 『시등공덕경』에는 몸에 아픈 병이 없이 건강하며, 고운 음성과 밝은 눈을 얻게 되고 좋은 재물을 얻어 생활이 안정되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남과 다투는 일이 없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설령 부처님께 작은 등을 공양하여도 그것으로 받는 복덕은 무궁무진하고, 사찰이나 탑에 등을 밝히면 현세에는 세 가지 청정한 마음을 얻을 것이고, 내세에는 삼십삼천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처님 말씀에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이 있다. 『열반경』에 나오는 이 말은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 가운데 하나다. 열반을 맞은 부처님에게 아난이 슬퍼하며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고 여쭙니 “진리를 등불 삼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를 등불에 비유하기도 한다. 『화엄경』에는 ‘믿음으로 심지를 삼고 자비를 기름으로 삼으며, 밝은 생각을 그릇으로 하고 공덕을 빛으로 하여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앤다’고 했다.

어두운 세계를 밝게 비춰주는 부처님의 공덕을 칭송하고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고

자 등을 밝히는 연등 공양에 대해서 불교 경전에서는 지혜, 해탈, 자비, 선행 등을 의미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무명의 세계를 밝히는 지혜의 등불을 밝혀 마음 깊숙이 잠자는 불성을 일깨우고 부처님으로부터 성불의 수기를 받아 온 세계를 불국토로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등 공양은 부처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는 것이자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무명을 밝히고 죄업을 참회하는 뜻으로 올리는 것이니, 그로 인해 받는 복과 공덕은 한없이 큰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불자는 어둡고 험한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그 길목을 지켜주는 충실한 안내자로서의 등불이 되겠다는 서원으로 이웃과 세계를 먼저 위하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



봄꽃의 향연을 펼치는 충북 진천 보탑사

보련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보탑사에는 해마다 봄이면 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하여 보탑사 경내외를 장식하고 있는 오색 연등과 금낭화, 매발톱, 앵초, 봉봉데이지, 팬지, 구절초 등 각양각색의 야생화가 어우러져 장엄한 부처님 세계가 된다.



3층 목탑

보탑사(寶塔寺)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보련산 자락의 연꽃골에 있다. 보탑사는 고려시대 절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자리에 세분의 비구니 스님이 1990년대에 창건하였다. 보탑사의 상징인 3층 목탑은 1996년 완공되었으며 이후 지정전, 영산전, 산신각이 지어졌다.

보탑사가 있는 진천읍 상계리 연곡리는 삼국시대 신라와 고구려의 국경지대로 김유신의 탄생지가 있으며 만뢰산에는 태령산성, 만뢰산성이 있다. 또 보물 404호인 백비가 있는 것으로 봐서 고려시대에는 이곳에 큰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탑사라는 이름은 법화경에서 따왔다고 한다. 법화경 견보탑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다보여래께서 증명하고 찬탄하기 위해 칠보탑이 솟아올랐다는 내용이 있다. 보탑사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자비심이 가득차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 지었다고 한다.

보탑사에는 통일의 염원을 가득 담은 3층 목탑이 있다. 보탑사 3층 목탑은 현존하는 목탑 중에 최고 높이인 42.71m이다. 상륜부 9.99m까지 더 하면 그 높이는 무려 52.7m이다. 목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모두 29개로 강원도 소나무를 자재로 하여 한 개의 못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통방식으로 지었다고 한다.

보탑사의 3층 목탑은 신라가 새로운 통일국가를 염원하며 황룡사 9층탑을 세웠듯이 남북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지은 탑이다. 이 탑의 가장 큰 특징은 3층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때 지은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의 5층 목탑인 팔상전(국보 제55호)과 전남 화순에 있는 쌍봉사의 3층 목탑 대웅전(보물 제163호)이 있으나 이 탑은 모두 사람이 오를 수 없는 통층(아래서 위까지 뚫려 있는) 구조이다.

1층 대웅보전은 심주를 중심으로 석가여래,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를 모신 보탑사의 본당이다. 2층 법보전(法寶殿)에는 불·법·승 3보 중 법보가 봉안되어 있다. 즉 윤장대(輪藏臺: 경전을 넣은 책장에 축을 달아 회전하도록 만든 책장)를 두고 팔만대장경 번역본을 안치했고, 한글법화경을 돌판에 새겨 놓았다. 3층 미륵전(彌勒殿)은 장차 이 땅에 새로운 정법(正法) 시대를 여실 미륵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2층과 3층 외부에는 탑돌이를 할 수 있도록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보탑사에는 그밖에 장수왕릉(장수충)을 재현해 만든 지장전, 너와지분을 엮은 귀틀집 형식의 산신각, 부처가 500명의 비구들에게 설법하던 모습을 재현해 만든 영산전, 외불 열반적정상을 모신 적조전 등이 있다.



법고각과 범종각

보탑사 지장전 뒤편 보호각 안에는 국내에 단 3기밖에 없는 백비(白碑 : 비문을 새기지 않은 비)가 있다. 보물 제404호인 연곡리 석비는 고려 전기인 10세기 경에 세워진 비석이다. 비몸과 비머리 모두 글씨가 새겨져 있지 않아서 제작년도나 경위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백비(白碑)라고도 부른다.

비의 전체 높이는 3.6m이고, 몸돌은 2.13m, 폭은 1.12m이다. 이 비에는 글씨가 쓰여 있지 않아 누구의 비인지 확인할 수 없다. 더구나 처음부터 비문을 새기지 않은 것인지 아님 지워버린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다. 비머리에도 네모진 비의 이름을 쓰는 자리만 마련되어 있을 뿐 글씨는

없다. 받침부분은 비 몸돌과 머리부분을 지탱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거북머리의 모양을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비에 새겨진 것은 말의 머리에 더 가깝다. 비의 윗부분에는 아홉 마리의 용을 새겼다. 사실적으로 표현되었고 조각기법도 우수하다. 조형양식과 수법으로 보아 고려 전기의 석비로 추정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연곡리 백비 이외에도 전남 장성군과 충북 제천 등 모두 3기가 남아있다.

또 하나 보탑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5월의 보탑사는 야생화 천국이라는 것이다. 비구니 스님들의 손길과 정성으로



천왕문

잘 가꾸어진 금낭화, 매발톱, 앵초, 봉봉데이지, 팬지, 구절초 등 각양각색의 야생화가 자연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든다. 작은 연못에 핀 팬지와 튜립 등도 고즈넉한 산사에 색다른 분위기를 가미한다. 덕택에 속세에서의 고된 삶 속에서 잠시 여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또 보탑사 인근에는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와 태실(사적 제414호), 그의 영정을 모신 사당인 길상사(충북도 기념물 제1호), 송강 정철 선생의 위패를 봉안한 정송강사

(충북도 기념물 9호), 만뢰산자연생태공원 등의 문화유적과 관광지가 있어 이곳을 둘러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보탑사 가는 길

승용차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중부고속도로 진천C에서 내린다. 안골삼거리에서 좌회전 해 21번 국도를 타고 초원휴게소까지 쭉 달린다. 보탑사삼거리에서 김유신 장군 탄생지와 연곡저수지 있는 방향으로 약 6km 달리면 보탑사가 나온다.

법왕사 소식

제26회 백고좌법회 회향



지난 1월 16일에 입재한 제26회 백고좌법회가 지난 4월 25일 해인사 홍제암 무관스님의 보살게 및 불명 수지법회를 끝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백고좌법회는 매일 약 2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법당을 가득 채웠으며 대한민국의 불교를 대표하는 100인의 큰스님들께서 불교경전 전반을 아우르는 경율론 삼장에 대해 설법하여 불자들이 두루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법회 중간에는 제주도 성지순례법회도 병행하여 더욱 보람찬 법회가 되었습니다.

제26회 백고좌법회 49재 회향

지난 3월 7일 입재한 제26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가 4월 24일 회향하였습니다. 이번 49재에는 2백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하여 조상영가와 선망부모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였습니다.

5월 13일, 제27회 백고좌법회 입재

법왕사 제27회 백고좌법회가 2014년 5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번 백고좌법회 입재법문은 한국 도심불교의 선구자이신 강남포교원장 성열스님께서, 회향 법문은 전 해인사 율원장 해능스님께서 하십니다. 법왕사에서는 2014년도 한해에 3회의 백고좌법회

를 봉행할 계획인데 제26회는 지난 4월 25일 회향했고, 제27회 백고좌법회는 5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제28회 백고좌법회는 9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봉행합니다.

특히 올해 백고좌법회는 천일기도와 함께 입재하여 갑오년 한해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여법하고 정성이 가득한 기도법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법회 중간에도 불명 보살게 수지법회, 삼사순례법회, 방생법회를 비롯해 문화행사도 다양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불자 여러분들로부터 법사스님 추천과 함께 자원봉사자 접수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4층 대적광전 삼존불 봉안불사 봉행

법왕사에서는 복지관 4층 대적광전에 봉안할 삼존불 - 법신, 보신, 화신불 모연을 시작하면서 불자 여러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높이 9m에 이르는 웅장한 대적광전을 장엄하는 삼존불은 법신 비로자나불, 보신 아미타불, 화신 석가모니불을 일컫는 것으로 모든 부처님 가운데서도 가장 존송받는 불상으로 무량한 기도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4층 대적광전 단청공사 완공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천장 단청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이번 공사는 착공 13년만인 2013년 11월 22

법왕사 소식

일부터 시작하여 4개월만에 완공된 것으로 우물반자와 여법한 단청이 도량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순례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 동안 1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제주도 약천사를 비롯해 불교성지를 순례하고 봄을 맞은 제주도 관광을 겸하는 순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법회 첫날은 천왕사와 관음사를 참배하고 점심 공양후 에코랜드 등을 둘러본 뒤 약천사에서 1박을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마라도 기원정사를 참배하고 석부분재 테마파크 등 관광지를 둘러본 뒤 1박하고 고관사를 참배하고 한라산 마방목장과 민속체험 마을 등을 보고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삼월 삼짇날 평생위패 합동 천도재 봉행

삼월 삼짇날인 지난 4월 2일(음력 3월 3일) 법왕사에 평생위패를 모신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합동 천도재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천도재에는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초파일 법당 연등 접수

갑오년 초파일을 앞두고 법왕사에서는 법당 연등, 사업등, 가족등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연등은 무명세계를 밝히는 크나큰 공덕이 있으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법당 천장에 드리울 대형 상들리에 9개 시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하실 불자님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설악산 봉정암 순례법회 안내

법왕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봉정암 순례법회를 봉행합니다. 동참금은 12만원으로 선착순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천일기도 제6차 기도 초하루에 봉행

지난 1월 15일 입재한 천일기도 6차 기도가 3월 초하루인 31일 초하루 법회 후 오후 2시 본당에서 100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기도법회는 주지스님의 집전으로 2시간 30분 동안 약찬게 49독후 축원을 하였습니다. 한편 제10차 기도일에는 기도도 동참하신 불자님들의 직계, 친가, 외가 합동 천도재를 올릴 계획이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천일기도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두 차례 봉행합니다.

■ 제43회 1천명 초청 경로잔치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5월 17일(토)로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천일기도 10차 기도시에 합동천도재 봉행합니다. 동참금은 영가 1위당 10만원이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제26회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원근에서 오신 비구, 비구니 스님과 타 종단 법사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가장 제2해오름요양원 부지 1,500여평 매입불사를 불자님들의 성원 속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152평 매입불사는 계속 접수받습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김재용	최제운	김상균	박영근	김인수
배재오	김재용	정형용	이영자	이석재
이창한	조진우	안현수	정진석	권영수
권영복	김옥란	정승모	박희백	김원태
제갈욱	오정순	전경원	남철호	차운재
민병학	황현숙	윤종록	우무성	최세리
임승현	박정숙			

불사 올리신 분

● 원불 봉안하신 분

ㄸ백은한(지장보살) ㄸ이경철(아미타불)
ㄸ김경남(지장보살)

● 대적광전 장판 보시하신 분

최재훈	최태희	이대해궁	박대희	백대행심
김종환	김임태	이영석	최남규	박종성
박경훈	이상자	정 돈	박종환	이정자
양문갑	양영갑	장우성	박성훈	

● 한 평 불사하신 분

권희경(반평)	김희동(반평)	김진아(반평)
김영자(2평)	최준영(2평)	임현지(2평)
최준혁(2평)	이승아(2평)	조규인(반평)

연등 올리신 분

● 갑오년 만불전 일년가족 법당등 올리신 분

10 이화꽃집(김혜경)	11 고정수
12 세기보청기(이희영)	13 부창떡집(배태동)
14 경산참숯불찜질방(장우성)	
15 조원불교(김수열, 권봉자)	
16 우포정사(영범스님)	17 최태희, 최용자
18 구실상화, 신명균, 신승훈, 문희정, 신민경, 신유림	
19 (주)G.F 코리아(홍승규)	20 편 비어킹(곽종란)
22 장호식, 박재화	23 서각반
24 다도반	
25 함창단	26 정무세(신인선, 정재훈, 정예은)
27 남상호, 이정숙, 남예지, 박종순	
28 박창호, 박창석, 박재석, 박문희, 이호은, 장미은, 박소윤	
29 전주맛집(전주수, 전주재, 전정재, 강유리)	
30 이법일, 김분순, 이강순, 이은주	
31 금강철강(오진환, 김정순)	32 삼신유업(추교홍)

33 최옥남 34 성진경, 박경란, 성윤, 성춘, 김원희

중등 올리신 분

1 선재수학학원(강현성, 서경아) 2 원공업사(강기찬)
3 강식해물찜(김치희, 엄세비, 김태균, 김규리, 임정환, 임주형, 임주호) 4 흑산도 흥어
5 장어와 미꾸라지(유종근, 최봉규)
6 해오름요양원(강선옥 국장) 7 대어초밥(노정섭)
8 대우공예사(박순영) 9 이웅옥(파워전기)
10 소원양초(임악군)
11 이창열(김교혁, 김민정, 김정운, 이명자)
12 자유기획(정활수) 13 속초물회(서병찬, 김미숙)
14 전성태, 윤화숙, 전진호, 전해란
15 삼성고속(최영달)

● 석불전등 올리신 분

대등 올리신 분

장백련화

영가등 올리신 분

김종렬 영가(김지택 복위)

● 갑오년 만불전 일년가족 법당등 올리신 분

214 김이한	215 이상욱	216 이상호	217 김영자
218 이희숙	219 최용석	220 김재현	221 안주선
222 김재홍	223 손삼정	224 전경원	225 남철호
226 허영철	227 심영선	228 박오환	229 조말호
230 최재훈	231 오창혁	232 김수권	233 박건수
234 김상한	235 이창한	236 김성훈	237 우인환
238 안병목	239 조준형	240 김태익	241 최종식
242 오금옥	243 실상스님	244 박창호	245 손윤희
246 박상익	247 박준후	248 최영곤	249 심보현
250 조기수	251 박말순	252 장오규	253 백보현행
254 김추석	255 연명석	256 송상규	257 송옥순
258 전지혜	259 김재경	260 김장국	261 최민우
262 이재왕	263 박소영	264 정규성	265 오광진
266 문원미	267 이강복	268 송재호	269 박성호
270 박정숙	271 정영용	272 조창신	273 손대천
274 박재관	275 박정흥	276 문상옥	277 신구자
278 황부원	279 김상연	280 김예환	281 정형용
282 김재용	283 김상자	284 김하나	285 김병택
286 이석진	287 고재욱	288 홍대환	289 조진우
290 조은주	291 정철영	292 장승환	293 이희동
294 이길우	295 김호연	296 전재술	297 박봉선
298 김옥란	299 민창준	300 장봉재	301 조용철

302 최규철 303 최종식 304 이선봉 305 손국본
306 홍현덕 307 윤금숙 308 정영선 309 임예숙
310 권영복 311 권영수 312 박경서 313 이인득
314 홍기수 315 이현영 316 유청일 317 박종환
318 전은재 319 박광준 320 여택동 321 이강수
322 이문진 323 김중환 324 김추석 325 이광일
326 서규하 327 김상석 328 이철재 329 이돈식
330 정승모 331 박희백 332 김원태 333 황영규
334 신지원 335 이광진 336 배종석 337 유화자
338 김중수 339 박유현 340 정진석 341 김태환
342 이봉문 343 차광하 344 이종석 345 강정선
346 최충근 347 박창수 348 윤병재

● 갑오년 분당 일년가족 대등 올리신 분

4 양영갑 5 조철제 6 이세정

● 갑오년 분당 일년가족 법당등 올리신 분

10 이진욱	11 남기덕	12 이동재	13 이동주
14 이동학	15 이보형	16 김중일	17 우종원
18 이석남	19 권기욱	20 최석돌	21 임찬기

● 초파일등 올리신 분

1 신격희	2 권장희	3 신종백	4 신종태
5 배재오	7 권혁진	8 김현태	9 한금복
10 김화자	11 허상현	14 정창근	15 조병호
16 김양수	17 오영길	18 신종수	19 박창석
20 김진구	21 제갈욱	22 정진실행	23 김중환
24 손홍락	25 김형길	26 백운수	영가
27 송진욱	28 강석대	29 전성근	30 김경숙
31 조옥희			

● 꽃등 올리신 분

42 김희동	43 이창호	44 오창혁	45 이재학
46 박대희	47 정정교	48 김상수	49 이정자

● 영가 대등 올리신 분(복위자)

4 최준영 5 진종원 6 이영찬

● 영가등 올리신 분

31 김영달	32 최재섭	33 송용훈	
34 권종오, 권오국, 권오삼		35 실상스님	
36 원인스님	37 자운스님	38 이점례	39 권오성
40 정돈	41 고정수	42 김희동	43 류지혜
44 김창득	45 최재훈	46 김영애	47 이재학
48 김상한	49 김민지	50~51 안선월	
52 조춘자	53 변우성	54 김영근	55 백재전
56 주정순	57 사공관	58 전용철	59 서영길

60 함지훈 61 남경형 62 이점례 63 권혁일
64 김동호

공양 올리신 분

● 공양미 올리신 분

신종호 이승재 박영승 이효조 서미경

● 떡공양 올리신 분

자운스님	전재술	사공관	김상수	최서원성
김영주	심재용	박대희	이세정	전숙환
강소남	권영숙	김수연	장재혁	신명균
권영숙				

● 과일공양 올리신 분

김순란 김유창 이정상(초하루 과일공양 일체)

● 대중공양 올리신 분

장어와 미꾸라지 안준영 사공관

가창 요양원에 보시하신 분

정광춘(모래)

사보 도움주신 분

조필호 : 100부
웅산스님(전 수덕사 주지) : 100부
전숙환 : 50부 최태희 : 30부 박경자 : 50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돼지저금통 회향 하신 분

오재대

제43회 경로잔치에 도움주신 분

윤금숙 김대덕화

축하합니다

- ◆ 안주선, 진순이님의 장남 종현군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 신종수, 박태숙님의 장녀 나라양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 보문화 보살님의 차남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왕생극락하옵소서

- ◆ 백은한 영가님의 초재가 4월 5일에 있었습니다.
- ◆ 강우조 영가님의 초재가 4월 10일에 있었습니다.
- ◆ 김정은 영가님의 막재가 4월 2일에 있었습니다.
- ◆ 김접이 영가님의 막재가 4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차옥순 영가님의 막재가 4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 박계담 영가님의 막재가 4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 이용임 영가님의 막재가 4월 27일에 있었습니다.
- ◆ 김진태, 김현태 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 3일에 있었습니다.
- ◆ 진은지 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 12일에 있었습니다.
- ◆ 감공, 오뜨 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4월 2일~4일까지 제26회 백고좌법회 중 제 주 이동법회가 있었습니다.

■ 봉정암 순례 안내
2014년 6월 13일~15일까지 봉정암순례 동참자를 선착순 모집중입니다.
동참문의 : 053)766-3747 동참금 : 12만원

■ 법왕불교대학 개강이 3월 14일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2014 MAY

Vol. 240호

해오름 소식



녹색환경봉사단

녹색환경봉사단 여러분의 정성어린 족욕 서비스.~
어르신들은 간지럽다 하시면서도 물에서 발을 빼지 않으셨답니다!



참사랑문화봉사단

쿵짝쿵짝 쿵짜작쿵짝! 참사랑 문화봉사단의 공연에
어르신들께서 브레이크댄스를 방불케 하는 춤사위를
선 보이셨습니다.



놀이프로그램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러 오신 김명희 자원봉사자
선생님! 박수치고 노래하며 일주일 동안의 스트레스를
몽땅 날려버리셨습니다.~



자원봉사

4월부터 새롭게 정기 자원봉사를 시작하신 최은선
자원봉사자 선생님! 어르신들과 첫 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미있게 잘 진행해주셨습니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3월)

◎ 수입내역

신진숙 1만원	김임태 5천원	정경석 2만원
곽순복 2만원	이성환 5천원	정시영 1만원
김영일 1만원	강선옥 1만원	반룡사 1만원
권보형 2만원	정옥선 1만원	김진성 1만원
정경숙 1만원	홍세림 1만원	이길영 3만원
심종순 5천원	신세호 1만원	홍새미 1만원
홍유식 5천원	한규매 5천원	박미경 2만원
조규인 1만원	윤광숙 5천원	정연이 5천원
이용옥 1만원	사공관 1만원	고선영 1만원
이인순 5천원	김외환 1만원	채옥연 5천원
김예분 1만원	김봉숙 5천원	박순남 5천원
배수현 2만원	박명숙 1만원	오난옥 5천원
박용관 1만원	신돈식 1만원	최복례 1만원
이병희 1만원	신화식 1만원	여택동 5천원
오금옥 1만원	김순란 3만원	조창신 1만원
이종희 5천원	박대희 5천원	신구자 5천원
황준원 1만원	안경순 1만원	이남희 1만원
조영석 1만원	최창숙 5천원	장인숙 5천원
안상준 2만원	박학순 1만원	주성순 5천원
권오성 1만원	강소남 5천원	조용수 1만원
조정자 5천원	강심규 5천원	박원태 1만 5천원
김정희 1만원	장성규 5천원	박태숙 5천원
유명옥 1만원	윤순희 1만원	김미자 1만원
이현우 1만원	김기덕 2만원	김유진 1만원
도화순 5천원	문정애 2만원	안명희 1만원
김수라 1만원	장재혁 5천원	노귀자 5천원
이임숙 2만원	이은주 1만원	양봉훈 1만원
이정옥 1만원	서규하 2만원	최분규 1만원
이재봉 5천원	김정임 1만원	이승미 1만원
양나영 5천원	김정규 5천원	권숙자 1만원
김대현 5천원	신혜경 5천원	엄세비 1만원
현영희 1만원	권명진 1만원	황미선 2만원
한희록 1만원	강영도 2만원	정운현 5천원
현인숙 1만원	권영희 1만원	이정훈 1만원
김은주 1만원	노수정 1만원	박병준 1만원
심규암 5천원	김영랑 5천원	권계화 1만원
황상욱 2만원	김정자 5천원	박재후 1만원
장우성 1만원	최은순 1만원	김기수 2만원
허유미 5천원	김정순 3만원	김경호 1만원
구정대 2만원	황지영 5천원	이은희 5천원
백옥수 5천원	김순태 1만원	장효주 5천원

이강복 1만원	진봉희 1만원	김민주 1만원
남기웅 1만원	무기명 19,770	신임선 5천원
우지선 1만원	강유미 1만원	강미경 5천원
김승환 5천원	장성용 1만원	이정희 5천원
박정목 1만원	정대영 1만원	이전희 5천원
이호동 5천원	손말두 5천원	김우영 1만원
우포정사 1만원	정선옥 5천원	임승현 1만원
최경순 1만원	박치민 5천원	강숙영 1만원
성외련 2만원	김경환 1만원	박귀분 1만원
고연숙 1만원	시명스님 5천원	김원형 3만원
정할수 3만원	성승길 1만원	박순영 5천원
임상덕 1만원	김형택 2만원	임익균 1만원

합계 1,614,770원

◎ 지출내역

- CMS자동이체 수수료	66,000원
- 문자통지 수수료	2,000원
- 부식재료구입	690,668원
- 약품구입	42,000원
- 요양원 필요물품구입	261,200원
- 차량유류비	100,000원

3월 총 사용내역 1,161,868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후원물품 보내신 분

윤정연 요양보호사 : 치약 23개, 비누 12개
유세모 어르신 보호자 : 딸기 2팩, 과자 1봉지
한을식 어르신 보호자 : 요구르트 45개, 사탕 1봉지
권민자 어르신 보호자 : 떡 1box, 커피믹스 1box
박말분 어르신 보호자 : 커피믹스 1box
노진덕 어르신 보호자 : 커피믹스 1box
서윤수 어르신 보호자 : 과자 4봉지
김민지 보살 : 고기 5만원 상당
장어와미꾸라지 : 40인분, 과일 2만원
채분이 어르신 보호자 : 치킨 2마리

봉사활동 하신 분

4월 20일 녹색봉사단 20명
4월 4일/11일/18일/25일 김명희 자원봉사자
4월 17일 참사랑공연단 6명
4월 5일/12일/19일/26일 최은선 자원봉사자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요양보호사 : 윤정언 선생님, 배운주 선생님
임예숙 선생님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 **신청방법**
- T.053-766-5767 담당 사무국장 강선옥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사무실(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 · 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가창 제2해오름요양원 · 병원 부지(1500여평)



제2해오름요양원 · 병원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찬으신 어르신 25분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는 분들은 많은데 복지관 내 요양원의 수용인원이 한계에 차서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법왕사는 제2해오름요양원과 병원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름 새겨드림)
문의 중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법왕불교대학 초급, 중급, 고급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초급 주야간반을 비롯하여 불교에 입문하여 더욱 깊은 교리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을 위해 주야간으로 중급, 고급반을 개설합니다.

- ◎ **초급반(주야간)** 실상스님(법왕사 주지)
기초교리
- ◎ **중급반(3개월)** 영일스님(스리랑가 유학)
빨리불교 원전
- ◎ **고급반(5개월)** 경전강좌

연들은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찬탄하고 중생의 무명업장을 소멸하는 크나큰 공덕을 드러냅니다. 법왕사에서는 갑오년 1년을 밝힐 범당 일년등, 가족등, 사업등, 영가등과 초파일 연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수희동참하시어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주위에도 널리 권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코스는 백담사 - 오세암 - 봉정암(1박) - 수렴동 계곡 - 백담사이며 회비는 12만원입니다. 출발은 6월 13일(金) 밤 11시 30분 법왕사 주차장에서 합니다.

- 코 스 : 백담사 - 오세암 - 봉정암(1박) - 수렴동 계곡 - 백담사
 ■ 회 비 : 12만원
 ■ 출 발 : 13일(金) 밤 11시 30분 법왕사 주차장
 ■ 문 의 : 053)766-3747

 대한불교종 법왕사

